주담대 7% 초읽기… 적자가구·20대 다중채무자 '발동동'

가구 17%, 빚 갚는데 소득 98% 써
13년 만에 주담대 7% 돌파 가능성
원리금 상환, 이자부담 가중 불가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연 7%를 돌파할 전망이어서 전체의 17%인 '적자가구'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자산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 적가가구뿐만 아니라 20대의 가계대출도 질적 악화도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변동금리 비중까지 높아져 서민들의 이자 부담 커질 전망이다.

적자가구란 금융안정상황 등을 분석할 때 소득을 '필수적인 소비지출'과 '이자 외 비소비지출', '금융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가구를 뜻한다.

적자가구는 소득의 98%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지출하고 있다. 또 상당수는 세입자에게 내줘야할 전월세보증금이 있다.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전·월세가 하락하면 적자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의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2052만 가구의 17.2%(354만 가구)가 적자가구에 해당했다.

보고서는 이들 적자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 460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간다고 분석했다. 그 외 필수 소비지출은 2400만원, 이자 외 비소비지출은 900만원이었다. 원리금 상환액이 경상소득의 98%를 차지했다.

여기에 20대의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악화됐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20대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되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과 취약 차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부터 현재까지 20대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462억원(0.2%) 줄어든 95조665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20대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전보다 2729억원(1.0%) 늘어난 26조8316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오름세가 뚜렷하다.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6.6%를 돌파했다.

시중은행 고정형(혼합형) 상품 금리 상단의 경우 우리은행이 지난 9일 기준 6.61%로 나타났다. 영업일 수로 하루 새 0.02%포인트(p) 올랐다. 시중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전반적으로 6%대 안팎을 기록 중이다. 6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2~6.59%다. 지난해 말 연 3.6~4.978%보다 상단이 1.612%p 급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고, 오는 6월과 7월에도 인상을 예고했다. 여기에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은 2018년 이후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담대 금리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연 7%를 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현재 연 5%에 육박한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보다 0.220~0.268%p 상승했다

특히 물가상승과 주요국의 긴축 흐름으로 한은의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62조원에 이른다.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13조원,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6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 만기가 2년 이상 남은 경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댈 곳은 역시 테슬라?… 서학개미 '줍줍'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2억6931만달러치 사들여
기술株 하락에 저가매수 기회 삼아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원픽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기술주 위주로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내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어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지수 추종 상품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중국의 봉쇄조치 강화 등 악재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약 27%가량 급락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하락폭(약 -30%)에 준할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현재의 시장 급락은 견조한 기업들의 실적, 증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과매도 성격이 강하다. 과매도 영역에서는 약간의 호재성 재료의 출현만으로도 주가 복원이 빠르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5월 2~8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총 2억6931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787.11달러로 집계됐다. 기술주의 매도세가 커지며, 2달 만에 700달러선까지 후퇴했다.

테슬라는 올해 안에 주식분할을 예고했다. 오는 8월 2일 연례 주주총회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하고, 주식분할과 분할 비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는 순매수 2위를 차지했다. 총 9811만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TQQQ는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다. 단, 지난 한달간 주가가 36.62% 급락했다.

이어 순매수 3위 종목은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인 아이온큐로, 2720만달러가 유입됐다.

한편, 아이온큐는 미국 공매도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 공매도 투자사인 스콜피온캐피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아이온큐에 대해 핵심 기술인 32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온큐는 해당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1560만달러가 유입된 스파이더(SPY·SPDR S&P 500 ETF TRUST)는 순매수 4위를 차지했다. SPY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 외에도 ▲아마존(1517만달러) ▲알파벳A(774만달러) 등 미국 대형 기술주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했다.

나스닥100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ETF(QQQ·INVESCO QQQ TRUST SRS 1 ETF),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 ETF(QLD·PROSHARES ULTRA QQQ ETF)는 나란히 순매수 6, 7위를 차지했다. 각각 1202만달러, 934만달러가 몰렸다.

8위는 아이셰어즈 코어 S&P 500 ETF(IVV·ISHARES CORE S&P 500 ETF)로 907만달러를 사들였다. IVV는 블랙록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며, SPY에 이어 S&P 500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두번째로 거래 규모가 크다. SPY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한은행, '금융+주거 서비스' 강화 나서

홈즈컴퍼니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1인가구 중심의 기업형 코리빙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홈즈컴퍼니'와 프롭테크를 통한 금융과 주거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신한은행 전필환 디지털전략그룹장과 신한캐피탈 SI금융본부 정상훈 본부장, 홈즈컴퍼니 이태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한 익스페이스(Expace)에서 진행됐다.

홈즈컴퍼니는 국내 최초 기업형 코리빙 하우스인 '홈즈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주택과 숙박관련 개발·중개·운영을 수행하는 종합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신한캐피탈에서 운용 중인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1호'의 투자와 더불어 진행됐으며 신한은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홈즈컴퍼니와 협업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업무협약식 후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왼쪽부터),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 정상훈 신한캐피탈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과 홈즈컴퍼니는 ▲홈즈스튜디오, 홈즈스테이, 홈즈타운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신한은행 고객 대상 부동산 종합서비스 협력▲부동산 데이터 교류·협력을 통한 고객 서비스 발굴 및 신사업 추진 등의 공동사업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공익법인 평가 최고등급 획득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한국가이드스타 주관 2021년 공익법인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그룹사가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며 손태승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단 설립부터 재단 설립 TFT 총괄을 맡는 등 재단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 종합평가는 한국가이드스타에서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법인 대상 투명성과 재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 공개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이승용 기자

하나은행, 가정의 달 맞이 'IRP 이벤트'

추첨 통해 720명에게 경품 혜택

하나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IRP로 행복 다~가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7월 중 경품 추첨 및 지급이 이뤄진다. 하나 IRP로 행복 다~가정! 이벤트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0만원 이상 1년 등록한 손님 ▲기 보유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손님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100만원 이상 계약이전 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은행은 추첨을 통해 720명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매(55명), SK주유권(55명),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교환권(55명),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쉽 포인트5000 하나머니(555명)를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